『설화의 약속』

글쓴이:djrw

◇개요

즐거운 수학여행! 세계를 덮친 전염병으로 한동안 못했지만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어른들의 사정도 있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근데 일정표에 따르면 수학여행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졌네요? 기분이 좀 그렇지만 대신 수학여행비 전액 학당에서 지불한다하니 괜찮겠죠!

그런데 알았을까요? 수학여행에서 개고생을 하리라고요.

■사전정보

- ❖ 룰북 “설화학당”을 소지하지 않고 기록자가 되는 것을 금합니다.
- ❖ 현대 도술학교 TRPG 설화학당을 기반으로 한 비공식 2차 창작물입니다.
- ❖ 강한 레일로드 식입니다.
- ❖ 추천학년은 1~2학년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 ❖ 추천 인원은 2~4명입니다.
- ❖ 해당 설화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자유로운 개변이 가능합니다.

1. 원저자의 이름을 유지합니다.
2. 개변한 설화를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설화를 설화학당이 아닌 다른 룰로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기록자만 열람할 것을 권장합니다.

화자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의 확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이것은 얼마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흔하디 흔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

한라산 중산간의 작은 마을. 월록마을에서 기러기 어미가 셋이서 같이 꽃밭을 보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린 기러기 하나만을 남긴채 저 멀리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약속은 이제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슬픔에 찬 아빠 기러기였지만 어린 기러기를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언제나 마음 속으로 재회를 이루어져 약속을 늦더라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어린 기러기를 키워갔답니다.

사실 떠나간 기러기를 만날 곳으로 짐작이 가는 곳을 기러기 아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피어난 꽃밭. 서천꽃밭이죠. 하지만 호랑이가 담배피기도 전 고대에는 지상과 저승의 경계로서 마음먹는다면 갈 수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현재는 꽃밭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수고를 해야합니다. 아이를 방치하고 들어갈 방법만 연구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아이에게 괴로운 과거를 안기게 되고 설령 들어간다한들 반드시 만나리란 보장도 없기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할 때 설화라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에 필요한 버스 한 대와 운전기사 한 명을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아니 차석현은 알고 있습니다. 설화라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정체를요. 그도 그럴게 자신도 그들과 같은 도사니까요. 이건 기회라 생각한 차석현은 운전기사로 자원함과 동시에 설화학당과 접촉했습니다. 설화학당의 수학여행이라면 꼭 가리라 생각한거죠. 서천꽃밭으로요.

주요 등장인물

■차석현

○○여행사의 버스운전기사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도사로 나이는 만 37세이며. 아내를 잃고 유일한 혈육인 아들 천설화를 혼자서 키우는 중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의무감으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누르고 있습니다.

■천설화

세간말로 영감이 강한 아이입니다. 어릴때 엄마를 잃고 아빠와 같이 지냈습니다. 마음 속에서 엄마가 있는 가정에 대한 부러움과 엄마가 없다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자존감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차석현의 사랑을 알고 소심하지만 활발하게 다니려는 아이입니다.

◇도입

오전 9시 20분, 위이잉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도착 구역입니다. 미리내 선생님을 따라 길을 나아가며 따로 짐을 부친 학생들이 회수처에서 캐리어같은 것을 가지고 오네요.

자동 유리문을 지나 제주국제공항의 로비로 나옵니다. 여러분 외에도 육지로 올라가려는 사람, 해외로 출국하려는 사람,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 그리고 여러분처럼 제주도에 온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띄지않게 개량한복인 학당의 옷이 아닌 현실세계의 옷을 입고왔습니다. 그래선지 익숙해하지 않은 학생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며 미리내 선생님은 버스 타러가자며 주차장으로 여러분을 인솔합니다.

몇몇 학생이 그냥 순간이동으로 오면 되는거 아니냐며 불평하지만 미리내 선생님은 오가는 과정도 수학여행의 묘미라며 얌전히 따르라 말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관광버스가 있는 주차장에 도착하니 칼라가 달린 남색 티셔츠와 검정색 나일론 바지를 입고 흰 운동화에 구식 군 패턴의 등산모자를 쓴 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관광버스 앞에서 여기라고 소리칩니다.

미리내 선생님이 여기라고 소리치는 남자를 보며 이번 수학여행동안 운전기사를 해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성함은 차석현씨라고 합니다. 무소속인 도사분이라고 하며 인사드리라고 하네요.

미리내 선생님은 버스안에는 자리가 많으니까 알아서 앉으라하고 자신은 차석현 운전기사님과 오늘 하루 목적지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학생들이 맨 뒷자리를 얻기위해 먼저 달려가네요. 여러분도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안을 살펴보니 이미 맨 뒷자석쪽은 다른 애들이 다 자리를 잡아버렸네요. 그렇게 어디에 앉을까 살펴볼 때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있습니다.

남자아이는 파란색 바탕에 갈색 책커버가 그려진 티셔츠에 베이직 색의 바지를 입고 발에는 검정색과 파란색을 주색으로 쓰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있네요.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여러분이 말을 걸고자 할 때 다른 학생들도 자리를 다 잡은 모양인지 이제야 차량 안을 살펴보고는 아이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어떤 학생이 아이다. 라는 말을 뱉은 것을 시작으로 자리에 앉았던 학우들이 여러분 근처로 와서 아이를 보려고 하네요. 아이코 무방비하게 핸드폰을 보던 아이가 갑자기 몰려든 학우들을 보고는 놀란듯 합니다. 폭풍 질문 세례가 쏟아지지만 아이는 놀란듯 대답하지 못하네요.

그때 미리내 선생님이 개입해서 봄빛으로 학우들을 진정시키고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화자들이 자리를 못정했다면 서둘러 앉으라고 미리내 선생님이 말합니다.) 미리내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번 수학여행에서 3일차까지 같이 다닐 아이라고 말합니다. 학우들이 질문을 해오지만 나중에 하라며 학생들을 진정시킨 선생님은 남자아이에게 자기 학생들이 놀래켜서 미안하다며 그리고 설화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라며 진정시켜주고는 자기소개를 부탁하네요.

남자아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름이 천설화이며 나이는 만으로 8살, 월록초등학교 3학년임을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들어와 이어서 말하길 이틀뒤 아들의 생일인데 공교롭게도 수학여행으로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사전에 학교와

합의해서 이번 수학여행에 같이 다닐거라며 학생들에게는 외부인이 당일날 갑자기 끼어든 모양새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오늘 10월 6일은 평일인데 학교에 가야하는거 아니냐고 질문하면,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오늘은 개교기념일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성이 다른 것에 대해 물어보면 아이 앞에서 말하기 껄끄러운 질문이라 나중에 아이와 떨어져있을 때 따로 물어보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미리내 선생님은 이제 출발할꺼니까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자, 즐거운 제주도 여행입니다!

◇1일차

오전 9시 40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주차장 주변에는 종려나무와 현무암 장식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무반응인 설화와 운전기사님과 신기하다면서 설레발떠는 여학우와 이상한 컨셉사진 남학우들이 대비되네요. 선생님이 박물관 보러가자며 먼저 올라가니 학우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혼저옵서예라고 적힌 석판과 박물관의 본관이 보이네요. 미리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마침 제주 신화와 관련된 특별전을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화자들이 이음학같은 학문의 교양을 쌓기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선생님은 박물관 관람할 때는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라며 주의를 주고는 관람하러 가라고 선언합니다.

화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설화와 함께가나요? 아니면 그냥 관람하러 들어가나요?

☆설화는 화자들이 같이 안데리고 간다면 다른 관람 코스를 통으로 넘기고 곧바로 신화 특별전으로 갑니다.

*만일 설화와 함께 가고자한다면 설화는 순순히 응해줍니다. 석현 운전기사님도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맡겨주네요.

>내부 관람.
제주도의 역사들을 여러 구간에 걸쳐서 유물과 설명문 그리고 안내로봇의 음성안내로 알려줍니다.

(설화와 함께 왔다면 집중해서 듣고 핸드폰으로 유물도 찍는 설화를 볼 수 있습니다.)
탐라국과 이후 병합, 조선시대의 이야기 등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2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설명문 보고 사진도 찍었을 뿐인데 벌써 그정도 시간이 지났나요? 주변에 다른 학우들은.. 없네요. 카페나 특별전에 갔으려나요?

오전 11시 28분

카페

북적이는 카페안에는 상당수의 학우들과 선생님이 보입니다. 미리내 선생님은 이곳에서 간식 먹으며 애들 관리중이라 합니다. 카페 안을 살펴보니 설화와 운전기사님은 안보입니다. 그 둘에 대해 물으면 아마 특별전에 있거나 먼저 나가서 버스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해줍니다. 이후 미리내 선생님이 시간을 물어보는데 여기에 답하면 15분정도 더 있다가 점심 먹으러 출발할꺼니 그동안 못 본게 있다면 보고 주차장으로 가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특별전
특별전 입구에 적힌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있습니다. "제주 신화속 저승의 꽃밭, 서천꽃밭"

안으로 들어가면 관람객 몇 명이 조용히 벽에 걸린 글과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람객들 사이에 파란 티셔츠에 검정색•파란색을 주색으로 하는 운동화를 신은 설화와 군 패턴의 등산모자를 쓴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보입니다.

차분히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면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돌아보면서 학생들도 특별전 보러온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물어보네요. 시간에 대해 말해주면 버스 시동 걸고 있어야겠다며 동 걸고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할테니 아들을 맡아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못 맡는다고 하면 알겠다면서 설화를 데리고 갑니다.

(설화와 함께 왔을 경우: 똑같이 시간까지는 물어보지만 그 다음 질문이 달라집니다. 설화에게 형•누나들과 같이 다녀보니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설화는 "보느라 잘 모르겠지만 즐거웠다"고 답합니다. 운전기사님은 몇분뒤에 출발할테니 그때까지만 더 맡아달라며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몇분동안 특별전시실의 그림이나 글귀들을 좀 봐도되고 벽에 그려진 서천꽃밭의 이미지를 그린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정보들은 글귀들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서천꽃밭이란?
한국 신화중 특히 제주도에서 주로 언급되는 지역으로 수많은 꽃이 피어난 곳이며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그리고 할락궁이 이 세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라 쓰여져있습니다. 이곳의 꽃은 무궁무진하며 그 효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군세를 몰살할 수도 있고, 사람을 멋대로 웃거나 울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천꽃밭은 이세경본출이, 바리데기 설화, 이공본풀이 등에서 언급된다고 쓰여져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주차장.
이제 다음 장소로 갈 시간입니다. 다른 학우들도 기다릴테니 서둘러 주차장으로 갑시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다행히도 버스에 학우들이 탑승하고 있네요. 화자들도 얼른 탑시다. 버스에 탑승하면 운전석에 앉은 차석현 운전기사님과 두번째 자리에 앉은 미리내 선생님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얼른 자리에 앉으라고 하네요. 곧 출발한다고 하네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제주 아쿠아리움
오후 1시 53분

점심을 먹고 이번에는 물고기 구경을 하러왔습니다. 어짜피 일정보면 알겠지만 내일은 오름과 한라산오르고 하느라 지쳐 떨어질게 분명하니 오늘 편하게 다닐 때 즐기라고 미리내 선생님이 버스 안에서 말하네요.

평일임에도 주차장에 차량이 어느정도 차있는 것을 보면서 주말에는 이거 만석일 것 같네요. 자, 앞서가는 미리내 선생님을 따라 아쿠아리움 건물로 갑시다. 건물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에 달린 고래상어를 필두로한 조형물, 좌측 한켠에 보이는 특별전 입구와 상점, 우측에는 매표소와 안으로 입장하는 입구가 보이네요. 선생님은 단체 예약 표를 끊으러 갔고 화자들이 로비를 둘러보고 있자니 눈을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처럼 아쿠아리움 로비 천장에 있는 구조물을 바라보는 설화가 보입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매표소에 있네요. 아무래도 설화와 자신의 것을 사는 모양입니다.

☆설화에게 아쿠아리움이 기대되냐 물으면 기대된다면서 밝게 웃습니다.

잠시후 선생님과 운전기사님이 걸어옵니다. 운전기사님은 설화에게 티켓을 한 장 주네요. 그리고 미리내 선생님은 모두에게 표를 한 장씩 나누어줍니다. 그러면서 4시 50분에 공연이 있으니 4시 30분까지 오션아레나로 오라고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쓸데없이 도술써서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도술말고 일반적인 문제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하네요.

화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설화와 함께 다니나요? 아니면 운전기사님과 같이 다니겠지하고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설화는 화자들이 같이 안갈 경우 차석현 운전기사님과 함께 아쿠아리움 본관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화자분들이 설화를 대려간다면 운전기사님은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여러분이 들어가는걸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입구부터 큰 수조에 담긴 작은 상어와 물고기 때가 보입니다. 아이와 함께온 가족이 수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관광객분께 부탁해서 찍어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설화와 함께 들어왔다면 수조 앞으로 가서 올려다보며 감탄을 자아내다 가족과 함께 온 아이를 잠깐 바라보다 외면하듯 안쪽으로 달려갑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여러 수조와 그안에 담긴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화려한 색의 물고기, 신기한 외형의 물고기, 게 같은 갑각류나 말미잘같은 생물들이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계속 걸어가다보면 물범 수조가 나옵니다. 여유자적한 물범들이 보이네요. 이쯤에서 한 번 관광객분께 부탁해서 사진을 찍어봅시다.

(설화를 대려왔을 경우: 달려가던 설화는 여러 수조들을 지나쳐 물범들이 있는 수조 앞에서 숨이 차 멈춥니다. 여러분이 달려와서 왜 달려갔는지 물어보면 미안하다며 입구로 돌아가서 다시 보자고 합니다.

☆관심법으로 마음을 추측해본다면 "가족과 관련해서 안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족에 대해 물으면 오늘 처음 만난 화자들에겐 말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건 봄빛이나 유순한 rp로 이끌어내려고 해도 안됩니다.)

다음으로 펭귄이 있는 수조입니다. 상당히 넓은 수조로 펭귄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무리중 다른 종으로 보이는 것은 잘 보니 모형이네요. 털을 관리하는 펭귄, 수영하는 펭귄, 아예 앞으로 누운 펭귄, 허공을 바라보는 펭귄 등등 정말로 귀엽네요.

금수학으로 판정해보면 훔볼트 펭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화를 대려왔을 경우: 지나쳐온 수조들을 다시 처음부터 관람하고 펭귄 수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귀여운 펭귄들을 배경으로 한 번 사진을 찍어봅시다! 사진을 찍고난 후, 설화는 지금이 만화속 상황이라면 눈동자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 처럼 웃으면서 펭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20분
펭귄을 보고 난 이후에도 수달, 갑각류, 수중 터널 등을 보고 감탄하며 도착했습니다. 제주 아쿠아리움의 메인 수조입니다. 크기만 봐도 엄청 크네요. 너무 커서 가까이서 보면 목이 빠질 것 같아요. 보아하니 수조 다이빙을 학우 몇명이 체험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위화감이 드는데 뭐죠?

(설화를 대려왔을 경우: 설화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관람하고 메인수조에 도착했습니다. (이하 묘사는 위와 동일))

☆인심으로 판정할 경우: 수조안에 있는 학우 중 한 사람의 다리 주변에 지느러미가 나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인어 학우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야 육지 생활을 하다가 바다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니 바로 신청했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무마시켜야합니다. 다행히도 전문 강사분과 수조를 바라보는 관람객들은 아직까지는 오리발로 착각하고 있어서 인어 학우의 위화감을 눈치챈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문 강사나 예리한 관람객이 눈치챌지도 모릅니다.

달구비는 아니지만 꽤나 위태로운 상황임을 연출하기 위해 현실 시간으로 15분의 제한 시간을 둘 것을 추천합니다.

안에 들어간 인어 학우에 대한 정보입니다.

☆강해현. 2학년. 금수학 특화
(성별이나 외형은 기록자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해결을 위한 "예시" 3개]
•금수의 언어로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부탁해서 해현이를 내보려고 유도한다.

•뒤바꾸기로 신호를 줘서 밖으로 나가게 유도를 하거나 아예 뒤바꾼다음 본인도 체술로 재빠르게 나온다.

•수조에서 해현의 모습을 가리는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한다.

어떻게든 무마했다면 선생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뒷 수습을 맡기도록 하고, 이제 학우들이 다이빙 체험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에는 메인 수조 프로그램을 관람한 뒤에 남은 구간도 마저 관람하며 사진을 찍어봅시다.

■오후 4시 30분. 집합장소.

바깥이 보이는 로비에 선생님이 인원을 세고 있습니다. 차석현 운전기사님과 설화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네요.

(설화를 데리고 왔을 경우: 바깥이 보이는 로비에 선생님이 인원을 세고 있습니다. 설화는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서있는 차석현 운전기사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 즐겁게 말하네요.)

자, 그럼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갑시다. 원한다면 마실것과 팝콘도 사들고요. 안에 들어가서 앉다보니 화자들 옆자리에 설화와 운전기사님이 앉게 되었네요. 운전기사님은 음료수 두 개를 설화 손에 큰 팝콘이 들려져있네요. 기대만발인 것 같습니다. 다리를 흔들며 기대하는 설화를 보고 있자니 곧있으면 공연 시작한다는 방송이 들려옵니다. 즐겁게 관람합시다.

■오후 5시 10분 주차장.
공연은 동물과 사람들의 쇼를 보면서 환호하고 감탄하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호텔로 가서 방을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일정표를 보면 그 후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10시까지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계속 즐겨봅시다.

■오후 6시 33분 호텔
큰 호텔이네요. 바닥이나 벽도 깔끔하고 로비에 쇼파같은 것도 놓아져있는데다 통창이라 밖이 훤히 보이는 것이 고급져 보이네요! 마침 미리내 선생님이 사전에 짜여진대로 방의 열쇠를 배분합니다. 설화는 예상대로 차석현 운전기사님과 한 방인 것 같네요. 미리내 선생님이 소란스럽지 않게 가서 짐을 풀고 식당으로 가라합니다. 학우들은 짧게 대답하고는 짐을 풀러가내요. 자, 화자들도 짐을 풀러갑시다.

•화자가 2인이라면 202호 열쇠를 받습니다. 두 화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202호, 203호에 각각 배정받고 같은 성별의 학우가 같은 방이 됩니다. 201호에는 설화와 석현 운전기사님이 배치됩니다.

•3인인 경우 같은 성별의 화자 두 명은 202호에 배치되고 남는 화자는 203호에 같은 성별의 학우와 함께 배정됩니다. 201호에는 설화와 석현 운전기사님이 자리를 잡습니다.

•4인일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갑니다.

짐을 풀고 식당으로 가니 선생님이 보입니다. 인사를 하고 밥먹으러 갑시다. 식당 안에는 설화와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보입니다. 학우들은 아직 안보이네요.

설화와 차석현 운전기사님과 대화를 나눌 경우
대화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화의 성은 특이하게도 어머니쪽을 따른거라고 합니다.

•아내는 설화를 낳고 얼마 안가 먼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같이 꽃밭을 보러가자는 약속을 못지킬 곳으로요.

•자신도 아내도 도사였던지라 설화도 기에 예민한 것이 빠르면 조만간 개화할 것 같다고 합니다.

•설화도 설화지만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억누르고 있을 뿐 아내에 대한 엄청난 그리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석현 운전기사님은 식사중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다며 이야기를 끊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며 오늘 하루 다닌 곳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설화는 두 곳 전부 좋았다고 즉답이네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 7시가 넘어가네요. 차석현 운전기사님과 설화는 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나요? 다른 학우들 방으로 가서 놀아도 좋고, 방으로 가서 하고싶은걸 해도 됩니다. 그렇게 자유시간동안 놀다가 선생님에 의해 잠에 들게 됩니다.

◇2일차

■오전 8시 50분. 영실매표소

일어나서 세수하고 조식을 먹고 난후 윗세오름 휴게소에서 먹을 도시락을 사고 버스타고 달려서 영실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상으로는 버스로는 못가기에 여기서부터 걸어간다고 하네요. 미리내 선생님이 이번 등산은 모두의 체술과 한방술 훈련을 위한 것이고 다른 등산객들도 많으니 도술 사용은 금지라고 합니다. 올라가면서 체력 훈련도 하고 자연과 신들의 기를 느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있는 풀과 나무 그리고 균사를 보고 사진을 찍은 뒤 먹어도 되는가, 약제로 써도 되는가 등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레포트를 받겠다네요.

가기전에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잠시 모두를 불러세웁니다. 잠깐 멈춰서 말을 들으니 아들도 따라가고 싶어하는 눈치라 부탁한다며 설화에게 배낭과 자신이 쓰던 군 패턴 등산모자를 씌워줍니다. 미리내 선생님은 알겠다면서 화자들을 비롯한 학생 모두에게 설화도 잘 챙겨주라고 말합니다. 자, 신들의 영역으로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올라갑시다.

☆등산을 시작하면 인심 판정을 진행합니다. 화자 전원이 시도하며 한 명이 실패할 때마다 중간 중간 쉬는 경우가 많아져 다음 장소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늦어집니다.
•2인 기준 한 명 실패할 때마다 10분 증가
•4인 기준 한 명 실패할 때마다 5분 증가.
(최대 20분)

■오전 10시 20분~10시 40분. 병풍바위

학당에서 기른 체력이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자들은 현재 영실코스의 절경인 병풍바위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다보니 설화와 함께 올라왔네요. 아무렴 어떤가요.

이곳의 절경을 보니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있는 경치라 생각이 듭니다. 설화와 함께 사진 찍고 잠깐만 쉬었다가 올라갑시다.

여러분이 등산객에게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서 쉬고있을 때 마젠타 색의 등산복을 입은 할머니가 다가와서는 어린 나이에 산을 오르는 것이 보기 좋다며 초코바를 하나씩 건네줍니다. 그러고는 산 위는 신들의 영역이니 그곳에 들어가면 잘 인사해야한다고 당부합니다. 화자들이 의문스러워 할 때 설화가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당돌찬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웃으며 먼저 올라갑니다.

☆만일 따라 올라갈 경우 정신차려보니 어느새 할머니를 놓쳐버립니다. 도력을 사용한 느낌은 없었으니 자주 산을 오르시는 분인가 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오전 11시 20~40분. 윗세오름.
저 멀리 백록담 남벽이 보이는 이곳은 윗세오름의 길 위입니다. 거칠게 난 암벽과 완만하게 난 오름과 현무암 돌과 노란빛으로 물든 식생들 그리고 푸른 하늘을 나는 까마귀가 한 점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림같은 풍경에 귀신처럼 기로 몸을 구성한 신들이 가을이 내려 앉은 오름에 눕거나 걸어다니고 심지어 다른 등산객 일행에게 잠깐 빙의해서 장난치는 것이 보입니다.

화자들은 어떤가요? 깜짝 놀라나요? 아니면 철저히 무시하나요? 확실한 것은 설화는 앞으로 달려가서 고개를 막 돌리며 사방을 바라봅니다. 반응을 보아하니 신들이 보이는 걸까요? 그때 마침 하늘을 날던 까마귀가 설화의 모자를 물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설화가 까마귀를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보니 어느새 신들의 시선이 화자들을 향한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화자들이 도사인걸 눈치채고 등산객들이 있는 이곳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모자를 가져올지 보겠다는 걸까요!

다행히도 주말치고 사람이 적고 화자들이 있는 곳에서 등산객들은 꽤 떨어져 있는데다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들이 시선을 돌려준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 기회이니 바로 가져옵시다. 화자들은 어떤 방법을 시도합니까? 시도 가능 횟수는 총 세 번 입니다.

세 번 이내로 성공했을 경우 모자를 설화에게 돌려주면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네요. 그리고 신들을 향해서도 가볍게 인사를 하네요. 신들도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줍니다. 그럼 사소한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휴게소를 향해 다시 걸어갑시다.

세 번 실패할 경우 결국 달려가던 설화가 넘어집니다. 울지는 않지만 찰과상이 생깁니다. 모자는 무안해진 신들이 까마귀를 통해 설화 앞에 떨어뜨려줍니다. 이 경우 응급처치를 하고 울먹이는 설화를 선생님께 대려갑시다.

■오전 11시 42분~오후 12시 2분. 윗세오름 휴게소.
드디어 윗세오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작에 도착하셨고 학우들도 몇 명 도착했습니다. (12시 2분에 도착했을 경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도착합니다.) 미리내 선생님이 여기라며 손을 흔들어줍니다. 선생님은 점심 먹을 시간 됐으니 빈공간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라 하네요. 설화와 함께 올라왔으니 설화와 함께 먹도록 합시다.

화자들은 어떤 도시락들을 사서 가져왔나요? 설화는 배낭에서 김밥 두 줄과 음료수, 작은 컵라면, 보온병, 빵빵하게 부푼 과자봉지를 꺼냅니다. 젓가락은 당연히 챙겨 왔구요. 다같이 점심을 먹다보면 다른 학우가 와서 설화에게 간식을 조금 주고 컵라면을 한입만

먹으려하거나 다 먹고나면 형(누나)들과 놀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모두 웃었으니 괜찮겠죠.

화자들과 설화가 거의 다 먹어갈 때 쯤 병풍바위에서 본 마젠타 색의 등산복을 입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신들에게 잘 인사했는지를요.

•잘 인사했다고 하면 역시 내가 점지한 아이들이라며 말린 진달레꽃으로 만든 책갈피와 초코바를 건네줍니다.

•못했다고 하면 내려가기 전에는 잘 하고 가라면서 책갈피만 건네줍니다.

할머니에게 더 물어보려할 때 마침 선생님이 단체 사진 찍자며 부릅니다. 그 소리에 잠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그 자리에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설화의 손에는 의미불명스런 초록색 꽃으로 만든 책갈피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단체 사진을 찍으러 갑시다.

☆꽃의 정체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리내 선생님은 점복학 교사라서 잘 못 알아봅니다.

그후에는 사진을 찍고 잠깐 놀다가 어리목 코스로 하산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표에는 오름도 가기로 했었죠? 아무래도 이 고생을 조금 더 해야할 것 같아요.

■오후 3시 21분 물삿갓오름.
(실존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낮은 높이에 완만한 경사 그러면서 한라산과 가까워 여러 식생이 사는 이 오름을 오르며 추가적인 한방술 탐구와 금수학으로 벗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미리내 선생님이 말합니다. 경험이니 뭐니하지만 결론은 수업이네요.

오름에 난 길을 따라 등산을 시작하면 산딸기같은 먹을 수 있는 것부터 광대버섯같은 먹으면 위험한 것까지 다양하고 겨울이 되기전 마지막까지 번식을 위해 달리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풀벌레들을 먹는 동물들도 보이고요. 덤으로 설화는 등산을 하느라 지쳤는지 버스에서 남았습니다. 운전기사님이 곁에 계시니 괜찮겠죠.

10분 정도 걸었더니 정상입니다. 미리내 선생님이 여기서 네 시까지 벗을 한 번 사귀어보거나 동식물을 관찰해보라고 합니다. 단,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을 벗으로 삼거나 채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시까지 벗을 사귀거나 동식물을 관찰 및 채집해봅시다.

(실제로 동행을 시전하거나 금수학 또는 한방술을 판정하여 나온 결과에 따라 레포트 자료를 얻었다거나 벗을 사귈 수 있었다 등 묘사를 해도 좋고, 시간이 없다면 물삿갓오름 부분은 넘겨도 좋습니다.)

4시가 되어 모두 성과를 공유하고 하산했습니다. 자,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석식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지다 취침합시다.

◇3일차

벌써 제주도에서도 이틀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지 일정표를 한 번 보면 동굴 관람과 꽃밭 관람이네요. 자, 가볍게 씻고 조식을 먹은 다음에 버스를 타고 나아갑시다.

■오전 9시 40분. 월록마을.
(실존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버스 안에서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면 밭과 밭을 나누는 돌담과 주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했지만 밭으로 들어가는 길은 콘크리트로 대충 포장해놨고, 듬성 등성 보이는 집과 비닐하우스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학교와 집이 좀 모여있는 월록마을 중심지에서 떨어진 이곳의 풍경은 누가봐도 전형적인 제주도 시골 마을의 예시입니다.

미리내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가면 월록굴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월록굴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록굴.
월록오름이 품은 용암 동굴이다. 총 길이가 2.32km 나 되는 동굴이며 석회동굴의 특징도 일부 지니고 있는 희귀한 사례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는 동굴의 환경보호를 위해 미리 예약된 손님만 받는 중이며 입장료는 성인기준 4,500원이고 1.2km 지점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볼건 많겠네요. 그런데 동굴과 꽃밭만으로는 오늘 하루 일정을 채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일정인가 궁금증이 머릿속에 생길 때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차례대로 내리라고 지시하네요. 잠시후, 버스에서 차례대로 내리고 설화와 차석현 운전기사님도 내립니다. 이번에는 같이 관람하려는 걸까요? 운전기사님이 문을 잠군 것을 확인하고 미리내 선생님은 모두를 이끌고 동굴입구로 가서 직원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직원은 알겠다며 펜스를 거두고 길을 열어줍니다.

■오전 9시 45분 동굴내부
동굴 안에는 나무로 길이 나있고 길을 따라 등이 켜져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쌀쌀한 바람이 불어 닭살이 살짝 올라올 것 같네요. 그러는 동안 선생님이 선두에 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맨뒤는 설화와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맡게 되었네요. 미리내 선생님이 나아가면서 용암 동굴과 석회 동굴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학우들은 동굴을 보며 신기해하거나 셀카를 찍거나 선생님의 말에 경청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걷다보니 어느덧 일반공개된 곳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위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화자들이 뭐하시는 거냐고 물으면 미리내 선생님은 미행하는 사람이 없나 확인이라고 답합니다. 학우들이 깜짝 놀라며 그게 뭔 소리냐고 묻습니다.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대신 답합니다. 이제부터 갈 곳이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위치한 꽃밭. 서천꽃밭이기 때문이라고 답해줍니다.

마침 선생님이 꽃밭으로 가는 새로운 통로로 핸드폰 라이트를 비추며 나아갑니다. 화자들도 조심히 나아갑시다.

■??시 ??분. 서천꽃밭

체감상 한 시간 넘게 통로를 걷고 그다음에 나타난 세 개의 강을 건너니 드넓은 꽃밭이 나타납니다. 모두 핸드폰으로 꽃밭을 찍으려하지만 핸드폰이 안된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학생들이 당황하자 명주로 된 한복을 입은 익숙한 얼굴의 할머니가 꽃밭에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기가 담기지 않은 이승의 물건은 여기서 작동이 안된다고 합니다. 복장은 다르지만 한라산에서 뵙던 마젠타 등산복을 입으셨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미리내 선생님께서 예의를 차리며 삼승할망이라 부르네요. 잠시만요. 삼승할망?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요?

지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승할망.
통칭 삼신할미라고도 불리는 신격으로 세간에는 인간의 아이를 점지하고 낳게 해주는 신이라 알려져있지만 도술세계에서는 인간외에 설화생물같은 존재도 아이나 탄생을 점지하고 낳게하는 신격으로 알려져있다.

엄청나신 분이신데 왜 이곳에 계신거죠? 모두가 의문을 가지자 삼승할망께서 말하시길 사라도령 가족이 한동안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동안은 자신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히 꽃밭을 관리했지만 그 탓인지 타락한 도사들이 이곳의 꽃을 노리고 몰래 숨어 들어와 한 두 개 캐가려다 적발되는 일이 생겨서 몰래 설화학당에 연락해서 내일이면 사라도령 가족이 복귀하니 하루 동안 꽃밭을 지켜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미리내 선생님은 이어서 서천꽃밭은 위험한 꽃이 많기 때문에 특수민속문화부에서도 들어오는 입구에서 천연기념물이란 명목하에 출입인원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삼승할망께서는 나중에 돈도 지급되고 경험도 쌓을겸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우선 지금은 자신이 있으니 꽃밭 중간에 보면 보이는 정자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은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네요. 미리내 선생님은 알겠다며 근두운을 타고 정자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설화는 차석현 운전기사님과 함께 근두운에 탑승합니다.

??시 ??분 서천꽃밭
양은 많았지만 맛있는 점심? 이었습니다. 삼승할망께서는 이제 아이들을 점지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계를 섭시다. 조를 짜서 들어오는 입구 방향과 그외 방향을 돌아가면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설화는 우리보다 어린아이인데다 개화할 가능성만 높고 중요한 개화는 안했기 때문에 정자에 앉아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데려오면 안되지 싶지만 의미없는 주장이니 그저 무사하길 빌 수밖에요.

(무의미한 경계 태세 상태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 체감상 이곳에 온지 네 시간은 된 것 같은데 별일이 없습니다. 안오는 것 같다 싶어서 방심하고 있을 때 근처까지 날라온 부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부적의 효과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본능이 말하길 저걸 막고 서둘러 적습이 시작됬다는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달구비 발생!

강너머에서 근두운을 타고 날라오는 도사가 여섯은 보입니다. 어른이 각각 한 명씩 맡고 남은 인원은 학생들이 상대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 학년당 20내외이므로 4~5명이 한 조로 묶어서 싸웁니다. 화자가 네 명이면 따로 인원을 보충안해도 되지만 두 명이나 세 명이면 인원이 충원되어야합니다. 아래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준비해두었습니다.

강해현/ 종족:인어/ 학년:화자와 동일/ 기숙사:매화 기숙사/ 체력:24/ 도력:13
인심:3 의지:2 예절:3 지혜:1 천운:4
금수학:4, 이음학:2, 점복학:2, 한방술:2, 부적학:1, 기본도술:1

임나영/ 종족:구미호/ 학년:화자와 동일/ 기숙사: 국화 기숙사/ 체력:21/ 도력:14
인심:1, 의지:3, 예절:4, 지혜 3, 천운: 2
자연도술:4, 보호술:2, 체술: 2, 부적학: 2, 이음학: 1, 한방술: 1

화자들이 포함된 조와 전투하는 타락한 도사의 데이터는 설화학당 304p 를 확인하세요.
(2이상 감소를 추천합니다.)

■에너미의 체력이 5이하일 때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슬쩍 그곳을 바라보니 배낭을 앞으로 맨 설화를 들어 턱밑에 칼을 대고 있는 도사가 보입니다. 숨어있던 일곱번째 도사의 등장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아이를 잔혹하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때 전투로 상대를 쓰러뜨리면 실제로 설화가 칼에 찔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회복이나 방어처럼 공격이 아닌 행동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2 라운드를 버티면 설화를 인질로 잡던 도사가 무언가에 맞고 날아갑니다. 설화는 배낭에서 새어나오는 녹색 빛에 감싸인 상태로 다행히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은 여성의 품에 안겨있습니다. 여성은 설화를 떨어뜨려두고는 날아갔다 돌아온 도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에 화자들이 상대하던 도사를 제압하고 설화 주변을 지키러 갑시다. 여성은 싸우는 것을 보아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시 ??분 서천꽃밭. 전투 종료.
화자들이 설화를 지키고 있을 띠 다른쪽에서도 하나 둘 제압 완료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압당해 기절해버린 타락한 도사들을 묶고 있자니 일곱번째 도사도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사태가 해결되었으니 시선이 여성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차석현 운전기사님이 여성을 보며 여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 녹색 빛에서 나오는데 성공한 설화도 여성에게 안깁니다. 여성도 딱히 부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실인 모양이에요. 그러자 차석현 운전기사님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며 울고 아내분도 덩달아 웃으면서 살짝 눈물을 흘립니다.

<헤어진 기러기 한 쌍이 저승의 꽃밭에서 아이와 함께 다시 꽃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오랜 약속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후의 이야기

설화와 그 가족들은 서천꽃밭에서 한동안 말없이 꽃밭을 바라보다 조심히 지내라는 안부를 건네고는 서로 있어야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설화를 감싸던 빛의 정체는 이전에 삼승할망께서 주셨던 책갈피에 담겨있던 녹색꽃이 보호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자를 포함한 학우들과 선생님, 운전기사님과 설화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이미 저문 상태였습니다. 삼승할망과 부상당한 보안직원 정확히는 특수민속문화부의 직원이 여러분의 안전이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해대는 통에 시간을 더 잡아먹어 호텔에 도착했을 땐 벌써 취침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과 다다음날도 수학여행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은 돌아갔습니다. 참 갑작스런 이야기의 마무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ND.

- 설화와 함께 2일차까지 다녔다. 설화의 선물을 얻는다.
- 윗세오름에서 신들에게 인사를 했다. 경험치 +1
- 두 번에 걸친 위기상황을 잘 해결해냈다.(아쿠아리움, 윗세오름)
  숙련도 +1
- 2라운드를 버티지 않고 그전에 먼저 재치를 살려 설화를 구해냈다. 숙련도+1

설화의 선물: 추후 개화한 설화가 우편으로 보내준 선물이다. 서천꽃밭에 다시 한 번 출입과 채취를 허가받아서 만든 책갈피다. 다만 안에 들어있는 꽃은 도력꽃이다. 이 선물을 지니고 있다면 설화중 딱 한 번 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때 회복 규칙은 기숙사 상징 사용 규칙을 사용한다.

■후기
여러분은 약속을 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세요. 저처럼 늦장부리다가 새벽까지 깨어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설화의 약속은 원안은 전투씬 위주로 만들까 했는데 시간부족+단편으로 우겨넣으면 난잡해지는 구성 등등 여러 변명으로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간단화 시키고 (자초한) 시간 부족에 쫓기며 쓰다보니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네요. 정말이지 오소리굴 팀에게는 늦게 제출하는 민폐를 끼쳐 놓고는 내용도 시원찮은 걸 내놔서 죄송하단 생각뿐입니다.